

민주연구원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미·중 사례의 시사점과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강득구 원장)은 9월 28일(월),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 정책브리핑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미·중 사례의 시사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 강득구 원장은 “AI 데이터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축이자,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브리핑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전력공급 측면에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짚고, 미·중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빠른 접속’과 ‘공급 책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첫째, 전국 단위의 수요 총량을 넘어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실제로 전력을 얼마나, 언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에 맞춰 전력공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둘째,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접속을 보장하되 규모·입지·부하 특성·계통 영향에 따라 접속에 필요한 조건과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셋째, 재생에너지·ESS·수요반응(DR)과 데이터센터의 조정 가능한 전력수요를 연계해 데이터센터를 전력계통의 유연한 수요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민주연구원 배지영 연구위원은 “미국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신속한 접속에 유연성·비용부담 등의 조건을 결합하고, 중국은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공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메가프로젝트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른 접속에 상응하는 전력공급 조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